

2020년 6월 국내·외 위성 관련 산업 동향

< 목 차 >

I . 위성 관련 소식

1. 한국 軍 통신위성, 내달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에 실려 우주로
(원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ZXN3YCF>
2. 무궁화위성 6A호 이르면 2024년 발사...위성 5G 서비스 시대 연다
(원문)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7552>
3. 중국판 GPS 베이더우 시스템 마지막 위성 발사 성공
(원문) <https://www.bbc.com/korean/news-53148024>
4. 밤하늘 별 보기 방해하는 ‘스타링크 위성’ 군집, 한국서 포착
(원문)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951395.html

II . 위성 관련 보도자료

1. 과기정통부, 생계형 무선국 등 검사 수수료 전액 감면

II. 보도자료

1 과기정통부, 생계형 무선국 등 검사수수료 전액 감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6.16.

□ 코로나 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약 27.4 억 원 면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이하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무선으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설비(각종 통신용 기지국, 무전기, 레이더 등)

** 산업·과학·의료·가사 등 활용 목적으로 가열·절단·세척 등에 전파 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용접·접합·절단기 등)

- 검사 수수료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무선국의 전파 혼·간섭 방지를 위하여 기술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시설자가 과기정통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납부하는 비용으로, 과기정통부는 일부 무선국에 대한 '20년도 검사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음

〈 무선국 검사 기관·대상·수수료 〉

검사 기관	중앙전파관리소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기정통부장관이 위탁)
검사 대상 (무선국 시설자 기준)	○ 국가기관 ○ 방송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지자체·공공기관 ○ 항공선박사 및 개인 소유자 등(감면 대상)
수수료	○ 국고 귀속	○ 검사업무 등 운영 경비 총당

- 금번 검사 수수료 감면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이하 ‘전파진흥원’)이 검사하는 무선국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소형 어선 선주 및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항공사 등이 운용하는 무선국을 대상으로 함
 - 약 2.7만 개의 무선국이 ’ 20년에 한해 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되며, 이에 따라 약 27.4억 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파진흥원은 검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 부담 부분을 기관 경비 절감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임
-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및 민생 안정 지원방안으로서 무선국 검사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며, 향후에도 과학 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 고 하면서 “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준 전파진흥원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고 밝혔음
 - 이에 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은 “전파진흥원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며, 향후 본연의 업무인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진흥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음